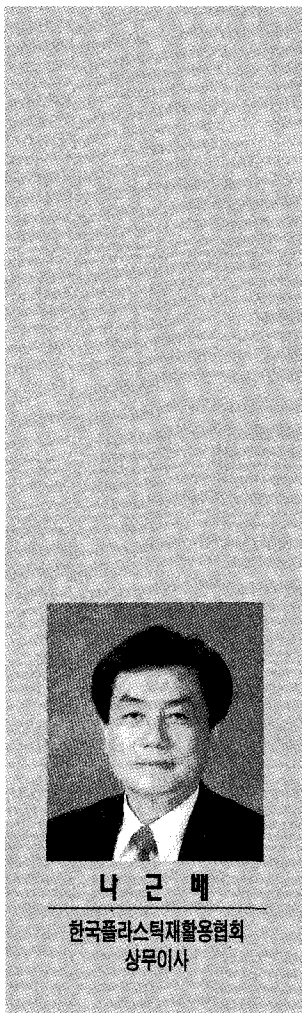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에 관하여

A Policy of Plastic Recycling



나 군 배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상무이사

플라스틱은 철, 구리, 알루미늄, 목재, 펄프 등 천연자원의 대체 물질로 사용되어져 귀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열에 의해 쉽게 녹기 때문에 재활용이 용이하며 원자재가 석유로 되어 있어 사용한 후 석탄 등 또 하나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뼈와 가죽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소(牛)와도 같은 플라스틱은 가격이 저렴하여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나 여타 소재보다 가볍기 때문에 운반비 등 재활용을 위한 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 나라에서 캔, 유리, 종이, PET 용기 등에 부과하는 예치금과 같이 일정 처리비용을 지불토록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년 전부터 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 합성수지 부담금이라 하여 연간 약200억원을 플라스틱 업계에 부담시키고 있으나 이 자금은 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촌 폐비닐이나 농약 병을 처리하는데 사용될 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재활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재활용율이 저조하게 되자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되는 물질로 오인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주범 인양 인식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용규제 제도까지 시행되고 있다.

▲ 플라스틱이 과연 범으로 사용을 규제해야 할 정도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인가?

▲ 그렇다면 현재 규제하고 있는 품목 이외의 여타 플라스틱까지도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과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범위를 확대시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인가?

▲ 아니면 선진국에서와 같이 재활용활성화 정책을 강구하여 재활용율을 높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인류는 생활에서 필요한 도구의 재료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시켜 왔다.

아주 멀리서 석기, 토기, 청동기, 철기로부터 죽재, 목재, 유리, 철강 그리고 각종 천연재료 등을 이용하여 왔다.

20세기 소재라고 불리워지는 플라스틱은 1907년에 개발되어 미처 사용방법에 대한 지식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속히 발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와 편의추구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이제 플라스틱은 기간산업 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의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면서 희소자원도 절약하는 효과도 대단하여 인류 생활 깊숙이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한 면만을 보고 흑 또는 백이라는 결론을 안이하게 내리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폐기물 처리문제를 가지고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인류에게 다방면으로 유익을 주는 플라스틱의 고마움을 재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이 신문고를 두드려본다.

첫째, 정부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사업자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규제 제도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플라스틱제품을 생산·사용하는 사업자는 우선적인 처리의무자라고 인식을 갖고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수요자는 플라스틱 제품의 유용성을 재인식하여야 하며 마구 폐기처리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이 전량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신문고는 포장산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표출,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곳입니다.
포장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